

##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앞장서야 한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국장  
조 기 흥

곧 도래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방송 및 언론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방송 및 언론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국민의 건강을 향상·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건강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일부인 노동자 건강보호 및 향상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즐겨보는 방송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체험 삶의 현장’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아마 이들 프로그램은 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의 달인’의 경우, 수 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모습과 신기한 기술을 보면서 감탄과 감동을 느꼈으며, ‘체험 삶의 현장’ 또한 노동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노동의 소중한 가치, 땀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

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 가급적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시청하곤 했다.

그런데 산업보건 전문가라고 자부한 나 자신조차도 그동안 방송프로그램을 재미와 흥미 위주로만 보았지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위험한 상황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달인의 빠른 손놀림과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땀을 흘리는 출연자의 모습에만 현혹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창피하지만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지나쳐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생활의 달인’ 중 ‘옥조의 달인 편’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유해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TV속 ‘옥조의 달인’은 옥조를 단단히 만들기 위해 경화제와 유리섬유를 아크릴로 만든 옥조에 분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눈에 봐도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옥조의 달인’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달인의 안면은 유리섬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화제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옥조의 달인’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으로 고생할 지도 모를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옥조의 달인’을 가리키며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안하고 참 열심히 일 해 주는 회사의 일꾼이죠.”라고 말하는 것이다.



## 제언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힘이 들면 쉬어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 또한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업주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한국노총이 2010년 실시한 ‘방송매체가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기홍)에 따르면, 10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안전보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61회로 나타났고 이중 개인보호구 위반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량물 취급방법 위반 15건,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 위반 10건,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 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반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방영된 장면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는 아니지만 방송내용의 정황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상의 조치 혹은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면은 총 90건으로 대부분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예방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방송의 영향력이 매우 큰 현실에서 아무리 산업보건 전문가가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산업보건교육을 열심히 실시하여도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나 장면이 여과 없이 나갈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 국민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방송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는 산업보건 전문가의 역할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